

물 이야기

김석현 | 건설기술교육원 원장



팔당댐 상류에서 홍수 때가 아닌 평시에 하루 유입되는 양은 평균 1,500만톤 정도이고, 이 중 매일 약 1,200만톤의 물을 상류에 있는 소양강댐과 충주댐에서 작년 홍수 때 가두어 두었던 물을 방류해주고 있다는 사실. 팔당댐에서 2,000만 수도권 도시들을 위해 매일 취수하는 양이 하루 800만톤 수준이라는 사실. 더욱이 소양강댐과 충주댐이 홍수 때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으로 흘러갈 홍수량을 절반 이하로 줄여준다는 사실. 이 덕분에 홍수 때 물바다가 되었을 강남 지역의 개발이 가능하였으며 현 규모의 수도권 존재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아는 국민은 매우 드물 것이다.

우리나라 물 문제에 관해서는 오랫동안 정부와 환경론자들의 말이 다르며 그 원인과 해법도 아주 많이 다르다. 정부는 홍수와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댐(저수지)을 더 많이 건설하고 하천을 더 많이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환경론자들은 이를 건설업자들의 일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음흉한 속셈이라 비난하고 있다.

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. 20~30년에 한 번 정도 발생 가능성이 있는 큰 가뭄만 아니라면, 이제 우리나라는 가뭄과 공장, 그리고 도시에 공급하는 물 부족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. 그동

안 십여 개의 다목적댐을 건설하였고 전국적으로 상수도 시스템을 거의 완비하여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수도로 공급받는 지역은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다.

하지만 정부와 일반 국민이 느끼는 물 부족에 대한 인식 차이의 근간은 정부의 수자원 계획이 평시가 아닌 20~30년에 한 번 정도 발생 가능성이 있는 큰 가뭄시를 상정하여 계획을 세운다는 점에 있다. 연중 강수량 변동 폭이 별로 없는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강수량의 변동 폭이 계절별, 연간별로 심하게 들쭉날쭉해서 가뭄이 드는 해는 물 공급 능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. 그러나 이미 일상적으로 사용 패턴이 자리 잡힌 생활, 공업, 농업 용수 등을 크게 줄일 수는 없다. 즉, 물 부족이라는 개념은 필요로 하는 수요는 평상시와 비슷한데 확률적으로 가뭄이 심한 해를 기준으로 물이 부족하다는 개념이다.

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 하천 3만km 가운데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, 겨우 3% 정도 되는 1,000km를 정치적으로 좀 요란스럽게 정비한 것이다. 그간 우리 국가 경제 수준에 맞추어 대부분의 하천은 작은 홍수와 가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전하게 정비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큰 가뭄과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. CERIK